

* 한혜리

Abstract

I. 서론

II.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와 실천양식으로서의 춤

III. 전수와 소통으로서의 춤

1. 문화적 전승으로서의 무용

2.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무용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8.10.27.

논문심사일 : 2018.11.17.

게재확정일 : 2018.12.01.

A study on communication function of dance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Research on communication function of dance’ is a study on the effect of dance to the world or society. In the process of culture of ideological practice, and in the process, we explored the function of dance as a practice method. The order of the study was to divide and explore the function of dance in the culture as the transfer of ideology and communicative action, and ca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s.

Dance is composed of technological mechanism and social environment in society or behavior system. The world ‘s dance, based on ideology embodied in technology and social environment, is composed of different technological mechanisms depending on the society of the times, and it transfers the ideology which is the resource of human thought.

Dance, which has been inherited and scattered around the world as a rational (or conceptual) knowledge accumulation and differentiated communication method, is a traditional dance, which is a window to look at the cultural or aesthetic value of a particular nation. It is a dance as a way of solving the desire of the members.

Dance in cultural texts. In other words, the transmitted dance is a practiced ideology. Dance at this time is not a recording method for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unchanging ideas or pastes of the past era, but a dance as a form of practice that acquires meaning from the social system.

Dance and cultural environment have difficulty to overcome regional closure. In addition, culture is a continuous social practice, and the function of dance as one of the ways of practicing is a communication function.

Successful dance behavior in communication, which is the inter-subject communication network, is to awaken the necessity of consciousness of one's own attitude.

Since recognition at the point where individual's desire or emotion is confirmed has the character of emotional unity and encouragement, the function of dance as communication is the nature of emotional unity and encouragement.

〈key words〉 dance, inter-subject, communication function, transfer, confirmed

〈주요어〉 춤, 간주관적, 의사소통 기능, 전수, 인정

‘무용의 의사소통 기능 연구’는 동시대 무용의 개념이나 사회적 혹은 개인적 기능을 통한 의미 연구를 넘어 무용의 잠재적 기능 연구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무용의 잠재적 기능 연구는 곧, 무용이 세계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세계 혹은 사회 변화에서 무용의 기능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란 생각(혹은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의 소통이다. 또 다른 생각 혹은 지식의 전달 방식인 전수는 생각이 오랜 기간 집단적으로 축적되고 전달되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문화라고 보았다. 그러한 문화 전수 방식 중 하나로서의 춤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생각의 소통을(혹은 전파를) 통하여 문명을 진보시킨다는 신념으로 구축된 인류 지성은 인간의 자연적 기억력에 기록 기술을 접합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 기록 기술이 인쇄 기술의 발명에서 영상매체의 대중화로 이어지는 기점에서, 춤 혹은 무용과 같은 상징적 전수 영역에서는 문자를 이미지가 대체하였다. 즉, 상징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형상화하는 방식 중 하나가 춤이었으며 지식세계에서는 이렇게 춤과 같이 이미지로 기억하는 전수 매체의 지속 효과가 문자의 그것 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¹⁾

문화적 궤도에서 의사소통으로서의 무용은 지구의 특정지역, 특정 인종의 습속이 반영된 춤의 전수 방식과 그것이 다른 문화 궤도의 춤과 충돌하는 체계에서의 무용으로 결국 무용 행위 또는 행동 특성으로서의 춤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즉, 생각 전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용(혹은 춤)은 실천적 지식을 전파하고, 이성적 지식의 철학 공론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국민교육을 실행하는 등의 개선되거나 진보된 실천적 결과물로 나타난다.

문화 유형 중 상징적 대상으로 분류되는 춤은 물리적 존재물의 형태로 보존되지 않지만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전승과 이전 그리고 전유될 수 있는 전수 미디어(매체)이다. 의사소통으로서의 춤은 생각이라는 상징적인 것이 춤이라는 이미지 이송 방식을 통해 전수되는 생각 전수 체계를 말한다. 그러한 문화에서 춤의 해석은 생각(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이 춤에 선행되지 않는다는 매체론에 입각한다. 춤은 물리적 움직임 이미지들로 구성되지만 그 이미지가 구성되는 체계는 이데올로기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¹⁾ “레지스 드브레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력을 평균100으로 수치화 한다면 문자는 76, 이미지는 117이라는 기억 지속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이재룡, 2003:407).

본 연구는 무용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무용의 전수 과정으로 탐색하였다. 문화로 전승되는 춤의 전수 체계에서 춤의(무용)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제시하는 선행 연구 및 배경 이론으로는 문화연구로서 무용의 해석 연구²⁾들과 매체학³⁾ 시각에서의(대중)예술, 민속무용 연구들을 들 수 있다.

II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와 실천 양식으로서의 춤

본 연구에서 무용(춤)의 구별 기준은 생각이나 사상의 계승과 전이인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에서의 춤 즉, 지적 축적물로서 상징적 의미를 보존한 채 움직임 이미지로 전승되고 있는 춤, 그리고 그것과는 달리 동시대의 개별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춤이다. 개별적 의사전달 방식으로서 무용이 약속된 코드나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연행(performance)이라고 보면 집단적 의사소통으로서의 춤(혹은 무용)은 시대를 이어 이전되고 전유된 문화적 유형의 춤(무용)을 말한다.

의도주의적인 의식이론에 따르면 무용 행위에는 춤추는 사람의 주관적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서의 무용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의사소통으로서 무용의 본질로 약속된 일정한 코드를 교육을 통해 학습한 후에야 읽기(혹은 해석)가(이) 가능한 이성적(혹은 개념적)지식 축적과 차별화 된 의사소통방식이다. 이러한 무용은 세계에 흩어져 계승되어 존재하며 특정 민족의 문화나 미학적 가치를 들여다보는 창인 전승(혹은 전통)무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시대 사회의 문제 해결 혹은 구성원들의 개별적(자기 표현)욕구 해결 방식으로서의 무용이다.

물리적 대상은 공간에서의 존재자이다. 반면에 상징적 대상은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전승될 수 있는, 즉 이전되고 전유될 수 있는 문화적 유형을 나타낸다(Habermas, J., 1981, 1987, 장춘익 역b, 2006: 344).

문화적 유형물로서의 춤은 이데올로기의 실천양식으로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내부 용어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상 즉,

²⁾ Desmond, J., Burt, R., Roberts, R. 등의 연구서들과 Roberts, A.(2000)에 기재된 비평가들의 문화(이데올로기) 해석들

³⁾ Debray, R. 등의 매체학 연구자들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 무용을 이해하고 트랜스 미디어를 문화 전수 혹은 이전 방식과 매체로 이해하는 미디어 이론 및 실천가들의 연구서들(김기홍, 김신엽, 김희경, 남정은, 박치완, 신광집, 신정아, 유재상, 임동욱, 조소연, 2016) 참조.

이데올로기가 시대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달 매체와 전승과정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라고 말할 때의 문화는 실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천 양식으로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무용을 문화에서의 춤으로 보았다.

문화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만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령 예술작품, 인쇄물, 혹은 컴퓨터, 테이프 같은 저장 장치 등 외면화 된 상징들 속에서 구체화 되어 있을 수 있다(Parsons, 1973: 156).⁴⁾

그 어떤 춤이나 무용도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을 지나 전승되어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전승 미디어인 무용은 문화 환경에 따라 그 사회적 효과가 달라진다. 이데올로기를 상징화하는 춤의 구성 요건은 물질적, 기술적 조건 그리고 사회, 조직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를 행위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행위의 본질은 가치에 따른 목적 활동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로, 물리적 사건들이 나타내는 유형이 행동(behavior)이라면, 그것들이 유형에 따라 산출하는 유의미한 행위(action)는 관련된 의미와 의도가 상징적 체계 즉 사회(행동체계)에 의거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행위이다.

행위는 세계안의 관찰 가능한 사건이란 측면에서 보면 한 유기체의 신체운동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한 주체가 세계에 개입할 (도구적으로 행위 할) 때의 운동을 어떤 의미를 구현 할 (의사소통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의 운동과 구별할 수 있다. 신체 운동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세계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전자의 경우는 인과적 변화와 후자의 경우는 의미론적 변화와 관련된다(Habermas, J., 1981, 1987, 장춘익 역, 2006: 171-2).

행위의 문화적 가치는 일반적 타당성에 있지 않고, 복합적 행위는 다른 행위의 수행을 통해 행해진다고 할 때, 기초행위 자체는 여타의 다른 행위들을 통해 실행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같은 맥락에서 관찰 가능한 사건으로서의 신체운동은 행위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위가 아니듯이, 의사소통 행위인 춤(무용)을 의사소통과 동일시할 수 없다.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것이 의사소통 매체의 본래 기능이라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행동화(실천)를 통해 조정되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지 행동화(실천)와(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 영역과 다른 영역에 속한 문화적 체계는 일반적 타당성과는 멀어졌다. 즉, 문화가 가치에 전문화되어 가는 반면, 사회는 규범에 전문화 되고, 이성은 목표에

⁴⁾ Parsons(1973), T. "Durkheim on religion Revisited. Another Look at the elementary form of the religious life", in Glock, Hammond 156ff. 장춘익(역, 2006: 369)에서 재인용.

전문화 되어 있으며 행동 체계는 수단 혹은 자원에 전문화 되어있다. 사회 즉 행동 체계에서 무용은 기술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 기술과 사회 환경에서 구현되는 이데올로기를 자원으로 한 세계의 무용은 시대사회에 따라 다른 기술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인류 사고의 자원인 이데올로기를 이송(전수)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들 간의 상호 작용은, 지역이나 민족 혹은 인종의 습속이 반영된 세계무용들과 국제적 엘리트의 산물인 ballet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부터 훈련된 사고력을 전수한 모더니즘 시대 천재적인 개인들의 사고의 반영인 modern dance와의 충돌을, 구별의 방편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학습의 필요와 이해의 매개로 사용하느냐하는 선택과 판단도 시대사회 정신 즉 이데올로기로의 문화이론으로 해석된다.

ethnic dance라는 용어를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La Mari로 불리는 Russel Meriwether Hughes는 20세기 초의 Saint-Denis가 세계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와 일시적 접촉한 것을 자원으로 자신의 춤(modern dance로 분류되는)을 구성하고 공연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의 다양한 춤들을 상세하게 배우고 연구하였다.⁵⁾

이렇게 역사적 궤도가 다른 이데올로기 즉 문화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들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춤 행위를 행동화 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에서 춤의 의사소통 기능이라 할 수 있다.

III / 전수와 소통으로서의 춤

생각이나 사상이 전달되는 전수와 소통의 두 가지 방식에서, 전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음 세대에 집단적으로 축적 전달되는 것이라면, 소통은 동시대적이며 개별적이다. 전수에서의 춤이 전통무용으로 분류되고 의사소통의 개별적 매개체로서의 춤을 예술장르에서의 무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적 그리고 기능적 개념 기준에서 문화와 예술을 생활(혹은 생존)세계와 분리시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전수되는 춤과 동시대 의사소통으로서의 무용은 가치가 전문화된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그 기능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⁵⁾ 김수인, 김현정(역, 2015 :121)의 내용 참조.

1. 문화적 전승으로서의 무용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 그리고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식과 함께 짜여있다. 그것은 문화적 확신이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그리하여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과 결부된 지식으로 변형된 순간에야 비로소 실행지식(know how)과 사실 지식(know that)으로 분리된다 (Habermas, J., 1981, 1987, 장춘익 역b, 2006: 348).

전수되어 존재하는 춤들은 문화 영역에서 각기 다른 체계(혹은 사회)와 각기 다른 형식의 춤들이지만 집단적 지식의 기록 기능으로 문화에 존재한다. 결국,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 혹은 사상이나 생각으로는 전수될 수 없으므로 이송 혹은 전달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수 매체로서의 춤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의 불변하는 습속의 반영으로 제한할 경우 그 때의 춤은 세계무용(혹은 민족무용)이나 민족무용이 된다. 이때의 민속, 민족 혹은 세계무용은 문화의 영역에서 발레의 엘리트성과 현대무용의 천재성(혹은 예술성)과는 대립영역에 존재하는 데, 그 때 세계무용의 특징은 불변하는 사고와 습속으로 그 의미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계에서 전수된 무용은 시대 사회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무용으로 오랜 기간 집단적 지식의 전수 체계에서의 무용이라기보다는 문자나 언어를 대체해서 의식으로 보존된(되는) 기록물에 가깝다.

규칙적인 것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습관화 된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는가(Weber, 1964:242).⁶⁾

의사소통 행위에서 습관화 된 세계란 행동화된 문화로 사고의 실천으로서의 행위의 구별된다.

특정 개인이 마주한 물체나 현상들에 대한 관찰은 각자가 혼자 하는 일이며 또한, 다른 관찰자의 관찰 명제에 대한 검증 역시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춤과 무용의 공통적 이해 체계가 발견된다. 무용이 사회 담론에 참여하는 것을 동시대 무용의 사회 관여성(social concern)⁷⁾이라고 한다면 관여의 방식은 춤의 형태나 구성 체계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존재하는 영역은 지역이나 인종의 습속이 반영된 공동체의 의식행위나 예술영역일 것이다. 집단(사회)적 제식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집단의 곤경을 해결하는데 맞추어진 것으로 “Duglas는 언어처럼 의례는 집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승한다”(Wuthnow, R., 1984, 최셋별 역, 2003 : 115)는 서술로 집단 제식의 상호소통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⁶⁾ 장춘익(역a, 2006: 303)에서 재인용.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 혹은 기타 불행한 자는 각각 고통의 종류에 따라 악마에 씌였거나 혹은 그가 모독한 신의 분노를 산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부족의 제식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집단의 곤경을 해결 하는 데에 맞추어진 것이었다(Weber, 1963:241-2).⁸⁾

동시대 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그것의 유래를 찾고 그것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며, 춤과 무용은 언제나 사회(체계)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무용 행위가 극히 개인적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그 실천이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문화적(혹은 종교적, 사상적) 영향력이 약소하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사회체계에서의 의미부여가 실천 행위인 이데올로기 실천 양식으로서의 무용이다. 그리고 그 때의 사회체계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실천영역으로 이는 정치, 종교, 사회의 각 전문 영역이 제도로 완성된 것이고 또한, 그 제도는 규범과 규칙을 동반하지만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잠재한 제도이다.

유럽 문화와 비유럽의 문화를 대칭의 관계로 놓았을 때 고급예술과 저급예술 그리고 classic과 전통무용 또한, 민속무용, 민족무용과 대중무용은 사회사와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와 해석에서는 특별하게 이데올로기적 실천 체계에 대한 분석 보다는 기교적이고 예술적인 판단, 문화적 복원 보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이 제3세계라고 알려진 곳의 대부분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던...이 시기동안에 비유럽적 문화들에 대한 대중적인 흥미와 엘리트의 흥미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와 같은 체계화의 과학(science of codification)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났다. '이국적인 것'은 학문적인 노력들에서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형태에서 매우 유행했다. 일부 고급 예술 맥락 속에서 이국적인 것은 고전적 문명화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묘사되었다.

동양은 유럽의 대화상대가 아니라 침묵하는 타자인 것이다. 예술가 또는 학자로서 서양의 동양학자(orientalist)는 동양을 말하게 만들고, 동양을 묘사하고, 서양을 위해 그리고 서양의 신비를 알기 쉽게 만든다(Desmond, Jane C. 1993-94: 33-63).⁹⁾

전수된 춤과 무용은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해 대상의 텍스트이기도 함으로 그 의미는 세계에서 가능한 상황들과 관련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획득한다. 그리고 그 과정의 타당성은 어떤 것이 인정을 받을만하다는 주장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

⁷⁾ community dance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 2011, community dance p.13 참조).

⁸⁾ Weber(1963: 241-2),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Tübingen.(장춘익 역, 2006: 314)에서 재인용

⁹⁾ 김수인, 김현정(역, 2015:143.149에서 재인용)

로 다른 역사의 궤도에서의 전수되고 있는 것, 혹은 전수된 것들에 대한 상호비판은 그의 편에서 상호관계를 수용하고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며 나아가 많은 특수한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른 용어는 ‘토의’일 것이다. ‘토의’가 대칭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일 때, 세계에 흠어져 각기 다른 체계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춤의 전수 방법론은 토의자의 해석능력에 관심을 둔다. 결국 해석학적 사례는 전승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적이라 함은 역사적 비판을 견뎌냈다는 뜻이다. 그의 생각에 텍스트에서 구현된 지식은 해석자의 지식보다 우월한 것이다....인류학자는 해석자가 전승에 대해 결코 언제나 열등한 자의 위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Gadamer, H. G., 1960:27).¹⁰⁾

문화 텍스트에서의 춤 즉, 전수된 춤이 구현하는 지식은 실천된 이데올로기로 이러한 실천양식으로서의 무용은 불변하는 지난 시대의 사상이나 습속의 전달이나 보존을 위한 기록법이 아니라 사회체계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춤이다.

2.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무용

전승된 춤들이 진리의 문제 혹은 규범의 정당성과 진정성 그리고 아름다움 등의 특수한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개별적인 인식과 정의 혹은 취향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게 되면서 가치영역의 전문화는 문화에서 과학, 도덕, 예술로 분화되어 전문화 되었다. 전문화의 결과로 전문화 문화와 광범위한 대중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

Martin, J.은 안무에 대해 현대무용 접근법을 따른 아프리카계 미국안무가들을 독창적이 아닌 ‘파생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그들이 아프리카의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웠을 경우 마틴과 다른 비평가들은 그들을 ‘창조적 예술가’라기 보다는 ‘자연적 공연자’로 간주하였다(김수인, 김현정 역, 2015 : 119).

Rose, G.(1981)의 설명은 “상호인정이란 ‘타자의 차이와 동일성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 형태이다’.”¹¹⁾ 흥내 내기나 모방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그와 동일시하거나 그에게 감정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역사 궤도에서의 춤은 다른 사회체계에서 존재하는 춤이다. 간주관적 관계에서의 해석이 필수적인 문화영역에서의 춤은 어느 시대

¹⁰⁾Gadamer, H. G.(1960), Wahrheit und methode.(장춘익 역, 2006: 225에서 재인용).

¹¹⁾Honneth, A., (1992), 문성훈, 이현재 (역, 2011:67)에서 재인용.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의 표현을 제어하는 암묵적 규칙(습속)과 이데올로기(세계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혹은 집단)의 자아개념에 의해 그 구성이 지배된다. 실천되는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무용은 언제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아(공동체) 개념에서 사회 관여를 의도한다. 이것이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춤으로, "(Habermas) 그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사이의 간주관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자유와 상호 의존을 가능하게 한다" (Wuthnow, R., 1984, 최섯별 역, 2003 :201), 자유와 상호의존의 상보성은 자유와 의존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타자 혹은 타 집단의 자아개념이다. 이 때의 자아개념은 타자(타 집단)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으로 시대 사회에서 변형되어 전수 되고 재구성된 자존감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자기표현 욕구는 문화적 합리화 즉, 개인의 사회 관여 결과이자 집단적 행동 유형 발생의 과정이다. 외부와 별이는 대결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성공적인 자기주장의 산물인 동시에 도구적 이성의 성취결과이다. 이러한 자아가 세상에 관여하는 즉,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의사소통이며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 중 하나가 춤이다. 이러한 춤 행위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의 갈등을 제어하며 내면으로는 자기객관화를 추진하게 한다. 즉,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지금, 이곳에서의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과 같은 타자의 의미를 사회체계에서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개별자 혹은 집단(공동체)의 정체성 발현 과정이다.

공동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일 때 인정된다.....공동선이라 모든 주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지만 이 때문에 주체 각자의 자율적 자기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Honneth, A., 1992, 문성훈, 이현재 역, 2011: 189.159).

의사소통에서 성공적인 무용 행위는 타자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일방적인 전달의 방식 대신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의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개인의 욕구나 정서가 확인 되는 것은 그것들이 충족되거나 거부될 때이기 때문에, 그 때의 인정은 정서적 일치와 격려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무용의 의사소통기능은 정서적 일치와 격려의 성질이 있다.

권리 인정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불러 일으킨다.(...)권리의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게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권리 주장능력의 인정을 뜻한다(Honneth, A., 1992, 문성훈, 이현재 역, 2011: 230.232).

의사소통의 춤에는 대칭적인 관계와 상호간의 인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의

사소통으로서의 무용 행위는 결국, 이데올로기 실천형식으로서의 무용이며, 문화영역에서의 전수된 춤은 실행 지식의 축적들이다.

독일에서의 인정 개념은 핵심적으로 타인에게 긍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 사실을 규정짓고 있다면 영어나 불어에서 인정 개념은 추가적으로 재인식 혹은 식별이라는 인식론적 의미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이다(Honneth, A., 1992, 문성훈, 이현재 역, 2011: 357).

실행 지식으로서의 문화가 이성 지식의 결여 내용을 채우는 방식은 이처럼 지리적 지역, 언어적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수되거나 충돌한 타 지역, 다른 언어, 다른 행동 양식들이다. 이러한 차이와 다름이 인류 사회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전수 내용이나 의사소통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소통 방식이나 소통 체계로 가시화되며 사회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예술이 이성(지식 혹은 이데올로기)으로 부터 분리되면서 예술작품은 의사전달에서 문화적 상품으로 변형되고, 여가와 문화, 요양과 여행이 상품 경제 법칙에 지배되고 대중 소비의 일부가 되면서 예술의 소비는 실제적 의도와는 달리 우연적 혹은 의도적 강점들로 변형된다.

다산이 강조한 인간의 본성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시대 다산도 “올바른 학문은 행위와 실천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변별한 적이 있다”(박석무, 송재소, 임형택, 2018: 66), 집단과 개인의 자아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무용이 문화 텍스트에서 문화 콘텐츠로 이양되면서 무용도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모호한 지점에 까지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 표준화가 용이한 반면 무용과 문화 환경은 지역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녔다. 그리고 문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 그 실천 방식의 하나로서의 춤이 가진 기능이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은 Habermas, J.의 간주관적 연결 관계에서 타자의 인정과 집단 정체성의 요소인 실천적 이데올로기의 전수가 전제되어 있다.

문화에서의 무용은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그 경험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리고 그 의미들은 연루된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행위 주체로 활동하는 사람과 그와 관계된 타자나 집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주관과 개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각자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으로서의 무용이 만들어 지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자아, 사회적 관계, 문화 텍스트의 담론들과 그 의미들은 사회체계 안에서만이 전수되거나 보급될 수 있다. 낯선 것과의 의사소통에서 도피하는 무용은 의미보다는 즐거움에 중점을 두는 행동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춤은 토의 보다는 보존에 의미를 두는 행동이다. 상품대신 이미지와 공간을 소비하는 시대에, 춤은 물리적 존재물의 형태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전승과 이전 그리고 전유될 수 있는 전수 미디어(매체)로서 이 때의 춤은 전승과 소통의 체계에서 기능한다.

‘무용의 의사소통 기능 연구’는 무용이 세계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이데올로기의 실천 과정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천 방식으로서의 춤의 기능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문화에서 무용의 기능을 이데올로기의 전수와 의사소통 행위로 분리하여 탐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출하였다.

사회 즉 행동 체계에서 무용은 기술적 메커니즘과 사회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 기술과 사회환경에서 구현되는 이데올로기를 자원으로 한 세계의 무용은 시대사회에 따라 다른 기술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인류 사고의 자원인 이데올로기를 이송(전수) 한다.

이성적(혹은 개념적)지식 축적과 차별화 된 의사소통방식으로 세계에 흩어져 계승되어 존재하고 있는 무용은 특정 민족의 문화나 미학적 가치를 들여다보는 창인 전승 무용 그리고 다른 하나인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무용은 동시대 사회의 문제 해결 혹은, 구성원들의 욕구 해결 방식으로서의 무용이다.

문화 텍스트에서의 춤 즉, 전수된 춤은 실천된 이데올로기이다. 이 때의 무용은 지난 시대의 불변하는 사상이나 습속의 전달이나 보존을 위한 기록법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체계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실천 양식으로서의 춤이다.

무용과 문화 환경은 지역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녔다. 그리고 문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 그 실천 방식의 하나로서의 춤이 가진 기능이 의사소통 기능이다.

간주관적 연결망인 의사소통에서 성공적인 무용 행위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의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개인의 욕구나 정서가 확인 되는 지점에서의 인정은 정서적 일치와 격려라는 성격을 내포하므로 의사소통으로서 무용의 기능은 정서적 일치와 격려의 성질이 있다.

참고문헌

- 강봉균, 박여성, 이진우 **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파주: 한길사, 외53명 공동집필 (2003),
- 김기홍, 김신엽, 김희경, 남정은, 박치완, 신광집, 신정아, 유재상, 임동욱, 조소연(2016), **문화 콘텐츠와 트랜스 미디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수인, 김현정 (역, 2015), **문화연구, 새로운 춤의 이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 (2011), **Community dance**, 서울: 한학문화,
- 박석무, 송재소, 임형택(2018), **다산학 공부**, 파주 : 돌베개,
- Desmond, Jane C. "Embodying Difference: Issues in Dance and Cultural Studies", *Cultural Critique*, No. 26 (Winter, 1993-1994), pp. 33-6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iske, J.(2011), *Reading the popular*, 박만준(역, 2016), **대중과 대중문화**,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 Habermas, J. (1981, 1987),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역, 2006), **의사소통 행위 이론-행위 합리성과 사회 합리화-**, 서울: 나남,
- _____ (1981, 1987),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역, 2006), **의사소통 행위 이론-기능주의 이성 비판을 위하여-**, 서울: 나남,
- Honneth, A.(1992),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 이현재(역, 2011), **인정투쟁**, 고양: 사월의 책,
- Roberts, A.(2000), *Fredric Jameson*, 곽상순(역, 2007), **트랜스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서울: 앨Parsons(1973), T. "Durkheim on religion Revisited. Another Look at the elementary form of the religious life", inGlock, Hammond 156ff.],
- Wuthnow, R.(1984), *Cultural analysis*, 최샛별(역, 2003), **문화 분석**, 파주: 한울 아카데미